

희곡우체통 극작가전

X의 비극



국립극단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X의 비극

작 이유진

연출 윤혜진

일정 2021년 3월 12일 금 ~ 4월 4일 일

장소 소극장 판

주최·제작 (재)국립극단

본 공연은 (재)국립극단 상시투고제도 '희곡우체통'을 통해
발굴된 창작 희곡으로 2020년 5월 11일 낭독회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
(재)국립극단 제작으로 2021년 3월 12일 소극장 판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쓰러진 자와 버티는 자들의 이야기

저는 이른바 ‘X세대’에 속합니다. X세대인 우리가 20대일 때 인터넷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얼마 뒤 IMF, 또 얼마 뒤 닷컴 버블을 겪었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지구상 온갖 일들이 펼쳐지는 중입니다.

사회문명 구조가 크게 바뀌는 일을 경험했지만, X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특별히 힘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받은 적도 없고 전쟁이 난 적도 없습니다. 동족끼리 칼을 겨누고 싸운 비극도 없었고, 최소한 제 주변에서는 민주화 운동을 가열차게 개진한 이들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2030세대처럼 미친 스펙 쌓기에 내몰려 청춘이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을 제대로 못 누린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세대도 행복해 보이지 않군요. 저마다 각자의 곤란과 고민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고민이 없는 세대, 아니, 개인이 있을까요. 육신을 안고 태어나 문명 속에 이성이 깨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존적 고민을 피할 수 없을 듯합니다. 사는 게 그저 쉽기만 한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희곡을 쓰기 시작한 물리적 햇수는 꽤 되지만 인간관계가 협소하면서 재능이 특출나지도 않은

지라 작품을 혼자 쓰고 혼자 감상 혹은 상상하며 버티 왔습니다. 특히나 이 작품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구상했는데, 30대 때의 주인공은 방구석에 드러눕기는커녕 거의 사고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무대를 뛰어다니며 온갖 사고를 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주인공과 작가가 40대가 되더니 둘 다 탈진했나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 밖에, 현서가 무대에 놓게 된 데는 두 개의 영감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한 TV광고에 나온 아무 것도 하기 싫은, 그것도 격하게 하기 싫은 한 남자의 의욕 상실에 녹아든 표정과 마르셀 프루스트가 어느 날 문득 어머니에게 앞으로 1년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한 라디오 방송의 믿거나 말거나 식으로 흐르던 멘트가 그것입니다. X세대에 대한 고민, 이들 영상과 멘트로부터 새로운 중년 버전이 시작됐습니다.

작품은 사실주의적이지 않은데, 세월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희곡우체통’ 낭독회를 한 2020년은 코로나-19의 해였습니다. 다른 공연들처럼 <X의 비극> 역시 낭독회에서부터 이번 공연까지 코로나-19의 전개에 따라 공연의 향방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작 이유진

언어의 본질과 구조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기억하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에 매료되었고, 그 수단으로 연극이라는 언어를 택했다. 다양한 세대의 언어를 빌어 『모란이모』를 시작으로 본격 극작활동을 시작했다. 오늘도 주위 세상이 희극이기를 바라며 희극과 비극을 쓴다.

주요작품

연극 『죽간여신』 『모란이모』

뮤지컬 『알리와 잔』

기타 『마법의 종』 『옹화』 외

코로나-19는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외국의 일이지만, 갑자기 늘어난 시체들을 안치할 곳이 없어 공터에 시체들을 쌓아둔 살풍경한 사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공습과도 같은 죽음의 동시대에 존재하는데, 현서가 오랜 시간 드러누운 채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를 고민한다는 게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 염려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이 타의로 위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행이 된 시대에, 사회적인 일에 지켰다며 쓰러지는 사람의 얘기가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우려가 생겼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뀔 것을 예측하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하지만 삶은 돌고 도는 것이고, 인간들 사이의 경쟁과 피로, 허무감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했던 기억을 가졌거나, 여전히 공감하는 분들도 제실 거라 여깁니다.

중년에 이르렀지만 삶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 삶과 죽음의 얘기를 쓴다는 게 지나치게 용감하거나 무모한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언급해 온 화두를 또다시 던지는 것뿐이지 않을까, 우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완벽한 정답이란 없지 않다.’ 이를 계속 상기하고 곱씹어 보면서,

조금이라도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려는 시도도 나름 의미는 있지 않은가, 여기면서 작품을 내밀어 봅니다.

대본이 가진 빈 여백을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손길과 숨결로 채울 수 있다는 데 희곡을 쓴다는 일의 독특한 묘미가 있겠지요. 공연이 무대에 오를 때까지, 혹은 오른 뒤에도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작품이 창조된다는 것은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작업입니다.

내일을 예측하기도 힘든 혼란스러운 시국에 이토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국립극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업 과정 내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주신 윤혜진 연출님, 그리고 스태프들과 배우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남은 자의 비극

인터뷰 진행·정리
남궁경(자유기고가)

〈질문〉이 작품은 현서의 독백으로 시작해서 독백으로 끝납니다. 시작할 때의 독백은 이제부터 드러누워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중반 즈음 애리를 만난 후부터 그는 안 일어나기보다는 못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 독백에서는 자신의 낙약함을 극복하고 일어나겠다며 초반과 정반대의 의지를 드러내지요. 현서가 자신의 선택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윤혜진 연출가(이하 윤)〉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현서에 대한 첫 느낌은, 그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누웠다고보다는 정말 완전히 지쳐서 결국 모든 게 정지된 상태로 보였어요. 그동안 쌓여온 피로, 삶의 무게와 책임져야 하는 짐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신체가 정지된 듯한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놓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작품의 시작에서 끝까지 약 일 년에서 일 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처음에는 방전된 김에 누워있었고, 그 상태가 길어지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처음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고집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워있는 와중에 애리를 만나며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고, 또한 자신으

로 인해 변해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요. 즉 생각은 변하기 시작했는데, 신체는 시간이 지나며 이미 박제처럼 굳어버린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질문〉초반에 드러났던 현서의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성공이 유일한 삶의 목표처럼 보이는 요즘 시대의 체제에 저항하는 모종의 가치를 품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그런 측면이 증발되어 버린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윤〉현서가 누워버린 이유를 찾다가, 그의 첫 번째 독백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있어요. 그는 자신이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그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한 가해자로 만들기도 하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서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이고 싶지도 않아서 모든 것을 중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서가 40대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과는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누운 것인데,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워버림으로써 곤경에 처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누구는 피해자고 누구는 가해자



이슈보다 감각에 집중하며 본인만의 연출세계를 구축해왔다. 2013년 아르코 차세대 연출가에 선정된 이래로 본격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늦은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한 장의 시(詩)와 같은 무대를 꿈꾼다.

주요작품

<잘자라랄라> <나 연극에 별 관심없어> <궁립공단. 무아실업>
<누군가 올 거야> <백사시옹+제10층> <개인의 책임>
<앙배추의 유례> <해맞이> <먼지섬> <어느 여름날> 외

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삶의 양면성과 아 이러니가 모든 인물들의 곁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단지 누워있겠다는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질문〉현서가 드러누운 뒤 가족들이 동요하고 해체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인물들의 행태나 대사는 각각의 세대를 대표할만한 보편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서가 드러누워 하는 말에도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했었을 수도 있을 만한 보편적 정서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20대의 애리는 다른 인물들에 비해 이런 보편성에서 벗어난 인물로 보입니다. 현서와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단지 그가 누워있다는 이유로 먼저 죽어보라고 설득하는 건 아무래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거든요. 새로운 방향으로 극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적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요. 애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작품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데 있어 관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저도 애리의 역할이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작품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애리가 선택하는 죽음이 그의 선택으로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배우들과 여러 번 나누는 적이 있어요. 현재 20대를 보내는 세대들은 현서가 20대였던 이십여 년 전과는 상당히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20

대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무 미리 다 파악해버린 세대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애리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애리가 뜬 구름 잡는 이상주의자 같은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애리는 의외의 인물이기도 하지만 현서와의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리의 모습이 20대의 현서 자신과 닮아 있어서 현서를 흔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감대가 없었다면 현서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았겠지만 둘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 현서가 반응한 것이라고 본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인물이 각 세대를 대표하는 보편성을 갖는다고는 하지만 들여다 보면 다른 인물들 역시 보편성과 함께 개인적인 특성 또한 갖고 있어요. 애리 역시 20대가 할 수 있는 보편적 고민과 함께 그 자신의 개인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정말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청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굉장히 많은데, 하필이면 20대를 대표하는 인물인 애리가 선택하는 죽음이 자살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걸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지금의 20대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진 미래에 대한 기대 없이 자살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마냥 비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배우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요.

물론 지금의 20대에도 연대하고 극복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애리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20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비극이 관객들에게 좀더 전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즉 자살 자체보다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세대의 비극이 좀더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질문〉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제목부터 X의 '비극'인데다 내용 또한 분명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의 재치 있는 대사들이 주도하는 풍자성과 희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의 비극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제목에서의 X는 현서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인물이어도 되는, 그런 변수이자 미지수인 데요. 일단 현서만 두고 본다면,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거예요. 흔히 X세대가 겪은 비극이라고 하는데,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면 계속 위기가 닥쳐온 세대죠. 작가님에게 듣기로 제목의 X는 X세대의 그 X라는 의미도 포괄하고 있다고 해요. 40대는 가장 왕성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나이잖아요. 지금 40대들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진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지요. 그러니까 앞으

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하면 비극이 앞을 가로막는 일이 반복되는 삶인데, 금융위기라든가 하는 이전의 비극들은 해결과 수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성격의 어려움이 도래했죠. 때문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현서를 예로 들었지만 도희 등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삶도 비극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다들 저마다 각자 현재의 비극을 살아가고 있죠. 현서를 비롯해 모든 인물의 삶과 시간을 몸의 움직임으로 보여주고자 해요.

바라기로는 현재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들, 그들의 삶, 그리고 삶의 비극이 이 작품에서 잘 보였으면 해요. 그리고 관객들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는 비극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희극일 수도 있듯이, 희비극이 계속 교차해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마흔 넷 현서가 자리에 뺏어버린다.
더는 노력하고 매달리고 질주하고 경쟁하며 살고 싶지 않다.
세상을 쫓으며 산다는 것에 탈진했다.
아내 도희, 아들 명수, 어머니 영자, 친구 우섭이 돌아가면서
아무리 설득하고 화를 내봐도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지쳐가지만 여전히 홀로 누워만 있는 현서.
그때 아들의 과외 선생님 애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I don't want to do anything.”

A 44-year-old man named Hyeon-seo sprawls out on the floor one day.
He doesn't want to endeavor, cling onto things and compete with others anymore.
He's exhausted from chasing after the world.
His wife Do-hee, son Myeong-soo, friend Woo-seob and mother Young-ja
all try to talk to him, but no amount of persuasion and anger can make him get up.
As times goes by, everyone gets tired of Hyeon-seo lying in bed.
Then Myeong-soo's private tutor Ae-ri comes up with a suggestion...





강현서

김명기 Kim Myeong-ki

연극 <스카펄>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이갈리아의 딸들>
 <나는 살인자입니다> <산책하는 침략자> <모던타임즈>
 <클라우드 나인> <시대는 서커스의 코끼리를 타고>
 <리처드 3세> <곰의 아내> 외



안도희

문예주 Moon Ye-joo

연극 <스카펄> <불꽃놀이> <화전가> <보이 갯츠 걸>
 <맘모스 해동> <칼리쿨라> <당통의 죽음> <부활>
 <꿈속의 꿈> <오늘 손님 오신다> 외



박우섭

이상홍 Lee Sang-hong

연극 <햄릿> <불꽃놀이> <명왕성에서> <가로들이 커지는 순간>
 <깨끗하고 연약한> <공포> <아리 아라리> <생존도시>
 <승관도> <형제의 밤> 외



안영자

이유진 Lee Yoo-jin

연극 <스카펄> <불꽃놀이> <화전가>
 <감옥에 가기로 한 메르타 할머니> <나팔봉> <가족연극>
 <취버영감의 소집영상> <어쩌나, 어쩌다, 어쩌나>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슬픔> <꽃과 건달과 피자와 사자> 외
 수상 2019 신춘문에 단막극전 우수연기상 <가족연극>



강명수

송석근 Song Suk-geun

연극 <햄릿> <스웨트 SWEAT> <들꽃찾아> <문신> <짬뽕> <감염>
 <세일즈맨의 죽음> <성북동갈매기> 외
 뮤지컬 <서울의 달> <장담그는 날>



윤애리

김예림 Kim Ye-rim

연극 <햄릿> <젊음의 열병> <동양극장 2020> <에쿠우스>
 <잃어버린 마을> <여도> <브라보마이라이프> <바보햄릿> 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X의 비극>은 지난해 국립극단 회곡우체통에서 처음 만난 작품입니다. 2018년에 신설돼 삼 년 동안 진행된 이 사업은 숨어 있는 우수 회곡을 발굴하여 국립극단 창작극 레퍼토리로 개발하기 위한 온라인 상시투고 제도입니다. 익명 투고를 기본으로 하며, 낭독회에 초대된 회곡은 배우, 관계자, 관객들이 함께하는 낭독 공연으로 개최해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일 년의 시간 속에 낭독했던 작품들을 대상으로 다음 해에 국립극단이 제작, 공연할 작품을 찾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낭독회를 병행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투고된 작품을 대상으로, 낭독회보다는 회곡 중심으로 제작 공연을 선정했습니다. 이유진 작가가 쓴 <X의 비극>은 1차 낭독회 초대작으로 5월 11일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2021 회곡우체통 극작가전으로 선정돼 다시 한 번 관객을 만납니다.



2020 회곡우체통 낭독회

선정평 “이유진 작가의 <X의 비극>은 탈진해버린 X세대에 대한 연극적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보니 X세대로 불렸던 1990년대의 청년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었군요. 과거 세대와 달리 기존 가치관에 잘 매몰되지 않던 이 도발적인 세대가 어른이 되었건만, 생존을 위해 모두가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야 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진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성찰은 과연 X세대 작가답게 재치있고 솔직합니다. 기성전결의 순차적 단계를 거부한 단도직입의 사건전개, 가식과 포장을 걷어낸 대사가 통쾌하고 워트 넘치는 작품입니다.” / 김명화 우체국장



국립극단에서 동시대의 화두를 탐구하는 회곡을 보다 많은 관객 및 독자와 나누고자 회곡우체통 낭독회에서 소개한 작품들을 모아 회곡집으로 출간합니다. 극장에 흐르는 시간에 이어 회곡을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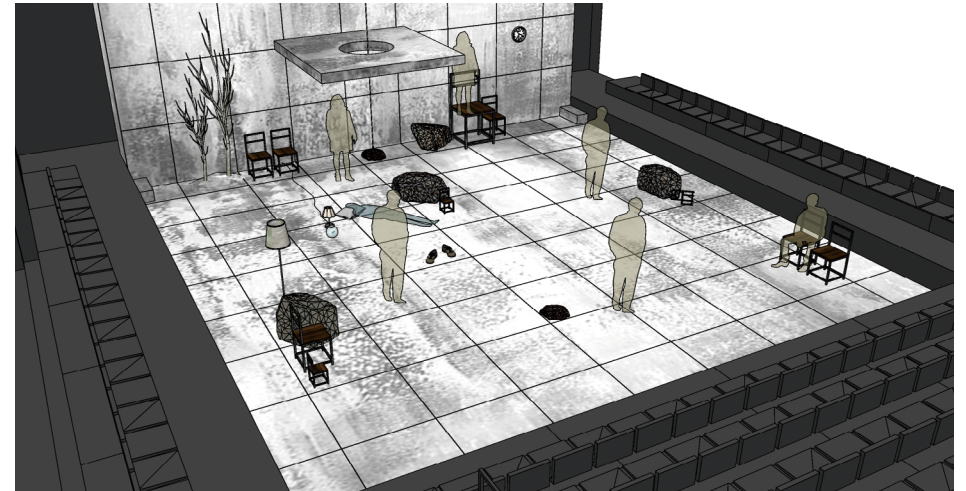
국립극단 회곡우체통은 삼 년의 시간을 끝으로, 2021년부터 [창작공간: 회곡]으로 새롭게 재편성됩니다. 동시대 화두를 탐구하는 회곡을 찾기 위해 현장 예술가들과 더 활발히 소통하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국립극단에서 제작할 회곡을 제안하고 싶은 준비된 작가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남경식

무대디자이너

연극 <X의 비극>의 공간은 ‘지금’이다.

매 순간 1분, 1초마다 늘 지금인 것처럼
극 안의 인물들은 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의 모여서 오늘이 되며,
그 오늘이 지금을 만나면 어제가 된다.



<X의 비극>의 무대미술

무대는 딱딱하고 건조한 레디메이드*와 같은 객관적 공간을 지향한다.
현재 2021년 02월 22일 19시 32분 12초, 13초, 14초...
매초 우리가 느끼는 지금의 순간이 공간을 이루며,
그 지금을 살아가는 인물들 각자의 자리와
순간마다 느끼는 기쁨, 쓸쓸함, 힘듦, 애씀 등이 공간의 거점이 되어준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녹록지 않은 마음이 무대가 된다.
무대 위의 모두가 그렇게 이렇게 지금을 잘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떠한가.

* 레디메이드(ready-made):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예술작품이 된 기성품 (출처: 고려대학교어대사전)

당신은 왜 드러누워 버리지 못하는가

김슬기
드라마투르크

여기,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드러누워 버린 한 사람이 있다. 처음엔 그저 조금 쉬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은, 이내 그들의 삶이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된다. 세계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때부터다. 모두가 강박적으로 자기 삶에 매달리는 가운데 가혹한 현실의 조건들이 드러나고, 드러누운 이는 그 현기증 나는 생존의 투쟁 속에 점점 고립되어 간다. 공감은 커녕 이해와 존중마저 실종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채우는 것은, 비난과 책망, 뒤를린 희망과 출구 없는 충돌뿐이다. 그 모든 불행을 지극히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로 환원해버리는 이 시대, 이렇게 <X의 비극>은 끌어다 쓸 영혼도, 갈아 넣을 ‘노오력’도 더는 남아 있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에 불러 세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할 수 없어 그저 드러누워 버릴 수밖에 없었던 현서의 선택 앞에 우리는 어딘가 불온한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대책 없이 시대에 적응해버린 삶, 돈과 집과 입시와 취업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계획할 수 없는 일상, 멋과 격을 논하는 것은 사치일 뿐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그 움짱달짝할 수 없는 경우의 수와 기회비용에 저당 잡힌 미래. 현서는 왜 잠시 휴가를 내고 여행이라도 떠나 스스로를 치유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소소한 행복으로부터 자신을 위로하고 회복탄력성을 키울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그저 번아웃이라고 농치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 소위 전문가들은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면서도, 왜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 무엇보다 우리는 과연 이런 현서를 두고 나약하다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그를 비난하면 할수록 남은 사람들이 더 강해져야만 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도?

이 연극이 어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몰락이라는 비극적 드라마를 가뿐히 뛰어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모두가 자기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각자의 좌표를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개인의 결함인 줄로만 알았던 것들은 사회적 흑독함으로 가시화되고 시대의 불안으로 증폭되어 간다. 진정 비극적인 것은, 그런데도 극 중 인물들이 여전히 그들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며, 탈주를 꿈꿀 여유조차 없이 도래하게 될 더 큰 불확실성 앞에 속수무책 던져져 있다는 사실이다. 인물들은 저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바라왔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든, 혹은 인지조차 못 하는 사이 그것에 이르게 되었든, 결국 무자비한 삶에 희생당한 이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삶과 죽음을 하릴없이 바라보던 현서는 마침내 살아있기를 선택한다. 그 무거운 선택이 또다시 어떤 삶으로 그를 이끌어갈지 상상하는 일은 이제 온전히 관객들의 몫으로 남겨진다.



<X의 비극>은 서로 다른 세대의 인물들이 저마다의 인생을 통과해가고 있는 이야기를 그린다. 우리는 특정 나이에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생의 감각이 있다는 것과 동시에, 각 시대에 따라 그 삶을 지배하는 특수한 세계의 규범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모든 개개인은 단순히 세대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될 수 없는 고유한 삶을 영위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등장을 마주하는 일이다. 현서는 그의 아들을 보며 이야기한다: “부디 너는 드러눕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지만, 확신은 없구나”. 애초에 현서가 드러눕지 않았다면, 남은 주택 대출을 갚고, 아들의 교육비를 지원했다면, 그는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을까. 아들이 버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현서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 어째서 당신은 드러누워 버리지 못하는가?! 하여, 이 연극은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생의 감각과 세계의 규범 속에, 당신이 통과해가고 있는 바로 그 인생 위에,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길 원하는지 말을 걸어온다.

현대 ~~인~~ 사회의 비극, 번아웃(Burn-out)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 소진증후군, 탈진증후군, 연소증후군

=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은 듯한 마음 상태

=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정신·신체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의된 '번아웃'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번아웃 증후군을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증후군'으로 규정하고, 직업 관련 증상으로 분류했다. 의학적인 질병은 아니지만 직장 스트레스를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판단한 것이다. 에너지 고갈과 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업무에 대한 냉소적 감정 증가 등을 특징으로 제시했다.

'번아웃'된 현대 사회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해 7월 직장인 7만21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직장인 중 71%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번아웃 증후군은 직장인 뿐 아니라 취업준비생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6월 취업준비생(취준생) 1858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피로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7%가 취업 준비 중 번아웃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출처: "재만 남은 듯 탈진" "아무것도 하기 싫다"
번아웃 겪는 직장인·취준생, 아시아경제, 2021

번아웃은 개인의 취약함이 아닌
직무나 사회 환경의 문제이다.

불안과 강박을 조성하는 사회

- 생산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
- 입시, 취업, 승진으로 이어지는 경쟁의 굴레
- 성과가 없다면 실패자로 낙인찍는 성과 중심 사회

피곤한 삶이 강요되는 사회

- 모두가 그렇게 하기에, 기본값이 되어버린 과도한 노동·학습 시간
- 휴식에 대한 죄책감을 유발하는 사회 분위기
- 일과 삶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재택근무

반복되는 경쟁으로 인한
자기 착취

축적되는
물리적 피로감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 업무에 대한 충분치 못한 보상
- 재량권이나 자율권이 제한된 업무환경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개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세상은 나를 너무나 압질렸고,
나는 파라다임을 수가 없어."

번아웃

"이제 내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번아웃은 일에 대한 효율의 저하뿐만 아니라
정신·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의욕상실, 냉소적 태도, 자기혐오, 무기력증
만성피로, 두통, 불면증,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참고자료: "내가 뭘 했다고 번아웃일까요." 안주연, 참비, 2020



작 이유진

프로필 3페이지

연출 윤혜진

프로필 5페이지

드라마투르기 김슬기

연극 <모랄하고 자빠졌네> <인정투쟁: 예술가 편>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우리가 고아였을 때> <20세기 건담기>
<깃븐우리절날> 외

무대 남경식

연극 <신의 막내딸 아네모네> <템플>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팜 Farm>
<나는 광주에 없었어> <인정투쟁: 예술가 편>
<레드 올랜더스> 외
뮤지컬 <렛 미 플라이> <판> <어쩌면 해피엔딩> 외

조명 성미림

연극 <칸느로 가는 길> <춤의 국가> <마른대지>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잘자라랄라>
<산책자의 행복> <당통의 죽음> <망토>
<이카이노의 눈> <국립공단_ 무아실업> 외

의상 안해은

연극 <잘자라랄라> <국립공단_ 무아실업> <양배추의 유레>
<아! 사고> <외투> <유리동물원> 외
기타 <서울거리예술축제 2016>

음악·음향 백인성

연극 <소네트 155> <잘자라랄라> <누군가 올 거야>
<엘렉트라> <백사시옹+제10층> <감정의 몰락>
<개인의 책임> <양배추의 유레> <먼지섬> 외

분장 장경숙

연극 <햄릿> <명색이 아프레겔> <달갈의 일> <왕서개 이야기>
<화전기>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외

소품 남혜연

연극 <온,오프라인 발전기>
<극단 애인의 3인3색이야기 시즌3> <꽃잎>

움직임 밝닝쿨 오마이라이프 무브먼트 씨어터 예술감독

연극 <신자유주의놀이-빈의자> <오딧세이>
<아방가르드 신파극>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외
무용 <부양부양> <공상물리적 춤> 외

조연출 박리안

연극 조연출
<소네트 155> <잘자라랄라> <Pick Me Up> 외
출연
<스코딩: 인간의 코드화> 외

출연

강현서 김명기
안도희 문예주
박우섭 이상홍
안영자 이유진
강명수 송석근
윤애리 김예림

스태프

작 이유진
연출 윤혜진

드라마투르기 김슬기
무대 남경식
조명 성미림
의상 안해은
음악 음향 백인성
분장 장경숙
소품 남혜연
움직임 밝닝쿨
조연출 박리안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김태연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오퍼레이터 임수연
음향감독 오퍼레이터 이병석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김민주
의상진행 심새늘
분장진행 박진경

무대제작 에스테이지(s_TAGe)
의상제작 타래
소품제작 스튜디오 이공
조명프로그래머 유보민
조명팀 정유석 김소현 곽태준 정우원
음향팀 김울아 김정호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김유연 이정현
마케팅 김태은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후원 이승이

홍보사진 장성용 정원균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홍보영상 이가윤 602 STUDIO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프로젝트
공연영상 연두픽처스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응용디자인 RE01
옥외광고 영기획
홍보물 인쇄 인타임

티켓 이현아
매표안내원 김인혜 김경은 채수환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이혜조 이민경 임지은 송솔
황지수 김성혜 배연준 김지수 박주은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 붐빔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희곡우체통
우체국장 김명화
운영진 심재찬 정명주
낭독회·희곡집 진행 조유림
희곡집 발간 도서출판 걷는사람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정채영
공연진행 윤정민
제작진행 김다애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이지연 아카이브
 박설아 연수단원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김철순 심소연 정채영 지영림
 이정민 박소영 김훈일 윤정민 프로듀서
 박소영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이정현 김유연 최윤영 홍보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송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강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박예원 인사·복무·복리후생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연구원
 최은수 연구개발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 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 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할인 받고 예매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 가입기간 1년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제작공연 40%할인(전등급, 4매 한)
- 국립극단 기념품 제공
-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매

국립극단 연극인회원

* 가입기간 3년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좋은친구 연회비 10만원

- 친한친구 혜택
-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 명동예술극장 기준)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매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그 중에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내가 아닐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